

〈계명구도〉와 〈노마지지〉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종류의 학생들이 많다. 주어진 연구 과제에 대해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학생도 있고 일일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학생도 있다. 사람들마다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법이 다 같을 리야 없겠지만, 능력 보다는 매사에 열심인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은 선생님들마다 다 같으리라 생각한다. 연구소도 마찬가지일 테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한가지 능력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숨어있는 능력을 잘 계발시켜 원하는 인물이 되도록 하는게 지도자의 도리라고 믿는다. 요즘 박찬호 신드롬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이외에는 제구력도 다른 동료선수들 보다 못하고 두드러지는 게 없는 박찬호의 숨어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LA 다저스의 〈코리아특급〉 선발 투수로 키운 스카우터들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식견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박찬호가 미국 메이저리그가 아닌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었으면 지금의 박찬호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람 키우기에 관련된 두가지 고사성어를 소개할까 한다. 이른바 鷄鳴拘盜(계명구도)의 老馬之知(노마지지)이다. 〈계명구도〉란 닭의 울음소리나 개짖는 흥내를 잘 내어 좀도둑질을 잘 한다는 뜻으로, 한가지 기술에 능하긴 하지만 비천한 사람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남이 하지 못하는 장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노마지지〉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잘난 체 해도 때때로는 늙은 말이나 개미만도 못할 수가 있다는 말로, 역시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고사성어는 역사적 배경은 다르게 태어난 말이지만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 330년 경에서 기원전 260년 경까지는 진(秦)의 국력이 강한 때라 동쪽의 육국(六國)에선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실권자들은 인재를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온갖 열의를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제(齊)나라의 맹상군은 유별난 데가 있어서 설사 범죄자라 할지라도 기술이나 예술 등에 뛰어나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여, 그의 문중은 항상 3천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제민왕(齊湣王) 25년에 맹상군은 왕의 명으로 진(秦)나라에 가게 되었다. 진의 소왕은 맹상군의 사람됨을 보고 자국의 재상으로 모시려고 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강경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다.

「맹상군은 당대의 어진 사람이며, 또 제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러한 그가 국정을 맞게 되면 틀림없이 제나라의 이익을 생각하고 진나라를 나중으로 미룰 것이니 그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이라하여 소왕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맹상군을 잡아 가두어 기회를 보아 암살하려고 하였다. 이를 눈치챈 맹상군은 소왕의 애첩에게 사람을 보내어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 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애첩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여우의 겨드랑이 흰털로 만든 고급 피의가 탐이 난다」고 했다.

맹상군은 원래 값이 수천금이나 되는 천하 일품인 물건을 가지고 왔었는데 진나라에 와서 그것을 소왕에게 헌상해 버렸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식객들과 의논을 거듭했지만 이렇다할 묘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때 한쪽 구석에서 좀도둑의 명수라는 사나이가 나서서 말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나이는 밤이 되자 개의 흥내를 내면서 궁중 창고로 숨어들어가 용케도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이것을 애첩에게 바치자 애첩은 소왕에게 간청하여 맹상군을 석방했다. 석방된 맹상군은 곧 진나라에서 탈출하고자 위장을 한 후 한밤중에 함곡관(函谷關)에 도착했다.

한편, 소왕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눈치채고 역마를 보내어 뒤쫓게 했다. 맹상군은 함곡관까지 왔으나, 관법(灌法)에 의해 첫닭이 울기 전에는 문을 열어 사람을 보내지 않으므로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객 중에 닭 울음 소리를 잘 내는 자가 있어 그가 흥내를 내자 근방의 모든 닭들이 따라서 함께 울게 되었다. 마침내 관문이 열리고 맹상군 일행은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중국 사기(史記)의 맹상군전(孟嘗君傳)에 나오는 <계명구도>의 이야기이다.

이제, 한비자(韓非子)의 說林에 나오는 <노마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662년 봄, 제(齊)의 환공(桓公)은 병사를 이끌고 고죽(孤竹)을 징벌했다. 공을 따르던 자 중에 재사 관중(管仲)도 있었다. 그는 지식이 많았고 지혜는 발군이었다.

출병할 때는 봄이었으나 싸움이 끝나 개전할 때는 이미 겨울이었다. 한 겨울 경치 속으로 길을 알지 못하는 제의 군대는 길에서 헤매이게 되었다. 밤이 되자, 캄캄한 어둠 속에 안개가 깔리고 바람도 불었다. 곧 안개는 걷혔지만, 햇빛을 밝혀도 방향조차 판단할 수가 없었다. 전진한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관중은 전군에게 정지를 명하였다. 그 곳에서 야숙하기로 하였다. 날이 밝아지면 길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침이 되어 주위를 보고 놀랐다. 어둠속을 지나 오는 동안에, 양쪽에 험한 산이 이어진 계곡으로 들어와 버렸던 것이다. 당황하며, 척후병을 내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산은 높고 계곡은 깊어서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항공은 어찌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관중이 제 안했다.

「이런 때는 노마(老馬)의 지혜가 쓸모 있죠.」

그래서 늙은 말 한 마리를 골라 고삐를 풀어주었다. 노마는 꼬불꼬불한 길을 익숙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군사들은 말 뒤를 쫓았다. 그래서, 전군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서 <노마지지>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계명구도>와 <노마지지>,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가 아니더라도 <늙은 말>이라도 쓸모가 있고, 개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 잘내는 재주로도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이 두 고사성어에서 다시 한번 <박찬호 신드롬>을 생각해본다. 지난 번 <썬터>에서 <노벨상의 41번째 의자>란 제목으로 글이 나간 뒤 K교수로 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대학원생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푸념이었다. 이른바 일류대학의 대학원생들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노벨상의 41번째 의자>가 아니라 <410번째 의자>에도 걸터앉을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 K교수의 푸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 못지 않게 <박찬호>를, LA 다저스의 특급투수로 키워낸 트레이너의 인내와 끈기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류대학이라는 <하버드>나 <MIT>보다 Univ. of Mass. at Amherst나 Univ. of Akron이 우리 고분자 분야에서는 더 저명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른바 일류대학 또는 일류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연구 분위기 및 연구 환경의 기득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계명구도>와 <노마지지>의 교훈을 되살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K교수에게 이야기했다. 비록 현재 가진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뒷받침해 줄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들만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준다면 기득권을 가진 연구 그룹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닭울음 소리, 개울음 소리 잘 내는 어떤 한 제자를 일국의 제상의 목숨을 건지는 구국의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남의 흥내만을 잘 내는 그저 그런 코메디언으로 키울 것인가? 아무런 쓸모없이 시간만 때우는 늙은 말로 안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가득 가진 경륜의 말로 만들 것인가? 이 모든 책임을 가르치는 입장에 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되뇌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